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3년 여름 | 2호

신임 관장님과 함께 | 특집 오리모양토기 · 부부애의 상징, 원앙새와 기러기 · 압형토기 감상
박물관 탐방 김해박물관을 찾아서 | 다시 읽는 선비들의 우리문화 사랑 개성박물관
전시실 산책 수정기념실의 소품들 | 학술발표 요지 낙랑전실묘의 지역성과 연대
박물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찻꼭지가 네 개? | 자원봉사를 하면서 전시실에서 만난 사람들
답사를 다녀와서 강릉지역을 돌아보고 | 특별전 안내 | 국립박물관 특별전 일정
새 박물관 미리보기 | 한국박물관회 소개




신임 관장님과 함께

제8대 이건무 관장은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박물관의 발전에 책임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관장님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온화하면서도 업무에는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관장님은 “21세기는 문화가 주도적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 창의력을 계발하는 박물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박물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는 전시와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열린 문화교육의 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며, “용산박물관 시대를 열면서 영상매체나 컴퓨터정보, 교육 방송 등의 채널을 활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직과 교육직을 두어, 스쳐 지나가는 관람에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려고 한다. 민족문화를 잘 관리하고 간직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며 세계화를 도모하려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질 있는 자원 봉사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과의 교류와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질문에는 “남북통일에 앞서 문화통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우리 모두 기대어린 시선을 주고받았다. 은

오리모양토기

東明王신화에서 朱蒙은 呪言으로 沸流國의 왕도에 7일간 홍수를 내려 송양을 굴복시킨다. 이때 주몽은 오리말(鴨馬)을 타고 갈대줄로 강을 가로질러 백성이 그 줄을 붙들어 살게 한다. 여기서 오리말은 오리처럼 생긴 말이란 의미일 수도 있고, 신령한 능력자인 주몽이 오리를 말처럼 이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오리는 재앙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神的존재로 신성시되었다. 샤머니즘의 우주창조신화에 의하면 태초에 세계는 온통 물바다였는데, 이때 오리가 수중 밑바닥까지 잠수해 흙을 퍼다가 물 위에 계속 쏟아부었고, 그 흙이 쌓여 오늘날의 땅이 되었다 한다.

이집트에서 오리는 태양을 낳은 존재로 여신 이시스와 결부되고, 유대교에서는 不死를 상징하며, 켈트문명의 문헌에서도 오리가 백조와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북쪽에서 와서 다시 돌아가는 철새인 오리는, 구원의 과정을 거쳐 至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고귀한 존재나 천사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오리는 하늘과 물의 관계를 맺어 주는 중개자이고, 무사태평을 상징하기도 하며 한가로이 물 위를 떠다니며 몸치장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나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물 위에 떠서 머리를 물속에 불쑥 처박으며 흡사 깊은 지혜를 구하는 듯한 오리는 심오한 신비를 탐구하는 기쁨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



높이(왼쪽 38cm · 가운데 18.5cm · 오른쪽 44cm), 호림박물관

늘을 날고 땅을 걸으며 물을 가르다 하여 天地水 三界를 내왕하는 靈物로 우리름을 받아왔다. 이는 水界나 地下界와 관련 있는 중요한 종교적 의미가 있다. 천상의 신명과 통신하는 솟대 위에 엮는 새가 오리인 것도 이 때문이다.

기러기 등 철새는 한 계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옛날 사람들은 天界 혹은 神仙界로 가는 것으로 인식) 다시 나타나는데, 이러한 능력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再生神意의 전달자 또는 중개자로 보다 높은 神靈의 상징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물고기를 물고 있는 오리의 모습은 그 자체가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했다.

가을에 북녘에서 번식하여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겨울철새는 대개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이곳은 한반도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며 벼농사의 중심지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오리모양토기는 祭禮用品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철새인 오리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동성 때문에 이승에서의 소멸과 저승에서의 재생을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靈魂觀과 합치되는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암시하며 초자연적인 세계로의 여행을 의미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넘나드는 영혼의 순환적 여행을 뜻하기도 한다.

천둥새로서의 오리는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경마을에 비를 가져다 주어 풍요를 이루게 하는 동물로 신앙시되었다. 이는 철새가 갖는 주기성이 농경에 필요한 비를 가져다 주는 계절풍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일부 마을에서는 솟대 위에 오리를 정남향으로 놓아 우순풍조를 기원했다. 오리가 북녘에서 날아오지만 남쪽에서 비를 몰고 온다는 믿음이 있어 물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적인 기원이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祈雨祭이다. 그러나 기우제는 비정기적인 祭儀인데 비하여 솟대의 오리는 상시적인 神竿物로 물의 확보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오리는 전형적인 물새로 잠수하기 때문에 홍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不死의 새로도 생각했다. 風水에서 말하는 行舟形 지세는 바다에 떠 있는 불안정한 배의 형태이므로, 이를 안정시키고자 배의 돛대의 역할로 솟대를 세우고 그 위에 대부분 오리를 얹었다. 오리는 마을

을 인도하며 평안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홍수나 재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새로 생각했다.

우리의 전통혼례에서 혼인날 신랑이 나무로 만든 기러기나 새를 신부집으로 갖고 가는 풍습은 암수의 애정이 깊은 새이기 때문에 변치않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鴛鴦은 단 하나의 짝에만 애정을 바치며 살다 헤어지면 그리워하다가 말라죽는다고 하여 배우자의 정조를 상징하고, 오리는 금실 좋은 배우자 또는 정절을 상징한다.

오리는 과거급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鴨을 破字하면 甲(갑옷갑)字가 나오므로 오리가 두 마리 있으면 ‘二甲’ 즉 鄉試와 殿試 두 가지 과거에 모두 장원급제함을 의미한다. 또한 오리는 다산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닭보다 크고 무거운 알을 낳는다. 그래서 서유럽·中近東 지방·중국 등지에서는 고대부터 오리알을 식용으로 즐겼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리는 3세기 경에 이르러 洛東江 東岸지역을 중심으로 토기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오리모양토기는 주로 오리나 기러기와 같은 사실적인 새의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대부



왼쪽 : 울산 하대 3호, 높이 32cm, 부산대박물관

가야 5세기, 대구 달성·안동 일대, 높이(왼쪽 16.5cm·오른쪽 15.5cm), 중앙박물관(신수 1110)

가야 5세기, 복천동 86호, 높이 23.7cm, 김해박물관

분이 硬質土器로 완성되었다.

鳥形은 일반적으로 오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3세기 경 胴體가 새의 형태를 취하지만 정수리 부분의 큰 깃이나 양쪽으로 튀어나온 귀 등의 조형성은 말과 새의 특징을 복합한 神獸처럼 느껴져, 실존하는 새의 일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葬送時의 의례용으로 고안한 儀器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

초기의 오리모양토기는 頭部에 큰 깃과 귀가 빠짐없이 나타나고, 顔面部에 코와 입은 있지만 눈의 표현은 드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후반에는 깃과 귀는 소략화되거나 없어지지만 눈은 반드시 표현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낙동강 동안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硬質化되면서 西岸지역으로 확장된다. 이는 오리모양토기를 사용한 집단이 정치적인 영역의 확장이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략 5세기 초를 전후하여 頭部가 馬形인 오리모양토기의 등장이 주목되는데, 말과 새모양의 결합은 갑작스런 출현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馬形이나 龜形과 같은 동물형토기도 함께 나타나는 것은 동안지역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새로

운 세력의 출현에 따른 토착세력의 이동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 후반부터 만들기 시작한 오리모양토기는 주로 신라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達城·安東·昌寧 등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발달했고, 원삼국시대의 토기에 비해 작아지지만 날갯깃을 그리거나 귀걸이모양의 날개가 붙는 등 장식이 강해진다. 기본적인 형태는 굽다리 위에 오리를 올려 놓은 모습으로, 몸통 속이 비어 있고 등 위에는 잔의 구연부를 붙이거나 꼬리에 구멍을 내어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모양토기는 일상용기라기보다는 오리형태의 제작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물과 관계 있는 儀式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낙동강 지방에서는 영혼이 승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구실로 새뻐나 새깃을 무덤 안에 넣었다 한다. 이는 고대사회의 새에 대한 신앙을 말해준다. 한편 토기나 金屬製의 그릇뚜껑의 손잡이에 새를 표현한 것과 무령왕릉의 頭枕에 봉황의 머리를 조각하여 붙인 것도 비슷한 의미였다고 생각한다. [M경](#)



가야시대, 대구 달성·안동 일대, 높이 11cm, 중앙박물관(신수 1109)



삼국시대, 경북 금릉 삼성동, 높이(오른쪽 14.5cm), 대구박물관(경주 2785)



5세기, 높이 6.5cm, 경주박물관(이양선 기증유물)

부부애의 상징, 원앙새와 기러기

김민기 | 화가

원삼국시대의 오리모양토기로는 숫원앙의 관모양 깃털을 연상시키는 祭器가 많이 출토되었다. 닭벼슬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가야의 오리토기도 있는데 미국 골돈 하트 수집품(Goldon Hart Collection, B.C 200~A.D 400년)으로 북미 인디언도 비슷한 것이 있다. 기러기는 암수가 한 번 짝지으면 배필을 다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혼례에서 사랑의 서약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한 쌍을 전해준다. 그래서 亡配의 슬픔을 '짝잃은 기러기'라 한다. 원앙새는 배필새(匹鳥)라 부르는데 수컷을 鴛, 암컷을 鴦이라 한다. '백제대향로'의 뚜껑 중앙에는 원앙새와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이 조각되어 있는데, 원앙새가 天帝의 왕궁 속 정원 연못에서 노니는 음양화합의 사랑새임을 잘 드러내는 사례라 하겠다.

『韓憑 搜神記』에는 원앙의 슬픈 전설이 있다. 대부벼슬을 지내는 한빙의 아내는 절세가인이었는데, 임금이 한 번 보고 혹하여 한빙에게 죄를 씌워 죽게 하고 아내를 빼앗았다. 아내는 왕궁 누각에 갇혀 잠자리에 불려가게 되자 유서를 써놓고 투신하여 남편을 뒤따랐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부부를 합장했는데, 왕이 이를 알고 대노하여 옆에 따로 무덤을 만들게 했다. 얼마 후 두 무덤에서 자란 가래나무의 뿌리가 서로 엉켜 하나의 큰 나무가 되었는데 어디선가 원앙새가 날아와 슬피 울자, 이를 본 사람들이 부부의 精魄이 원앙새가 되었다고 했다. 원앙의 암컷은 촌부의 모습으로, 수컷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다. 우리 민속에서는 부부의 사이가 나빠져 공방귀가 들면 먹으로 원앙새를 그려 출입문에 붙였는데, 이것을 '부부회합부'라 한다.

한민족의 성산인 백두산 영봉에는 하늘의 연못인 천지가 있고, 여기서 흘러내린 크고 긴 푸르른 강을 오리가 내려온다 하여 한자로 鴨綠江이라 적는다. 왜 이 하늘의 강(天河)을 '오리의 푸른강'이라 했을까? 여기에는 단군조선의 문화적 상징성이 함축되어 있고, 天符經을 읽는 열쇠를 오리에게서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단군신화에도 새가 등장한다. 환웅이 天符印과 風伯·雲師·雨師·雷公과 삼 천의 인재들을 거



5세기, 높이(왼쪽) 11cm, 김해박물관

느리고 신단수로 내려와 神市(天府)를

여는데, 天宮은 건축가 제비가 짓고

세발까마귀(三足鳥 : 해)와 두꺼비(蝦 : 달)는 밤낮으로 開天宮을 밝혀 홍익인간의 道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힘썼다' 고 한다. 위에서 풍백은 바람의 신 오리神將이고, 운사는 구름의 신 鶴官(관리의 우두머리)이며, 우사는 비의 신 龍官(치산치수담당 사공격)이고, 뇌공은 천둥번개의 신 박쥐로 白馬都元帥이며 隻邪進福의 수호신이다.

가뭄이 극심해 대지가 타들어 가면 바람의 신 오리가 바람을 일으켜 구름을 모으며 비를 만들고, 홍수가 나면 바람으로 구름을 쫓으며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오리신장 풍백의 역할이다. 멕시코 인류학박물관에 있는 바람의 신 '에에카톨(A.D 10세기)'은 부리가 강조된 오리머리사람(鴨頭神像)으로 고아시아 문명이 북미를 거쳐 남하한 것으로 보이며, 공통적인 神鳥신앙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인디언 유물에서는 지금은 사라져 없고 기록에만 남아 있는 우리의 옛모습을 볼 수 있다.

'단군천부경'에서 오리는 북두성의 사신이고, 24계 중 낮이 짧고 밤이 길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혹한(동지·소한·대한)을 살피는 使者이다. 일 년을 평생에 비유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때다. 벗어나려 발버둥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엄동을 지내듯 쉬며 기다리라는 뜻으로 9궁(洛書에 나오는 9방위를 일컬음: 中央·乾·坎·艮·震·巽·離·坤·兌)의 첫 자리 감궁을 '휴문'이라 한다(坎天逢休門一宮). 참고 기다릴 때 안에서 생기가 陽生冬至한다는 것이다. 뒷날 엄동의 시기가 인생의 큰 교훈이 되며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이다. 오리는 이를 무언으로 일깨우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덕행자를 찾아 하늘에 알리는 天福使者이자 풍백이다. 이것이 우리 솟대 위의 오리이자 '가을에 다시 오리(再來)'이고, 순환의 깨우침을 주는 스승이자 대자연의 사신인 것이다. [M](#)

鴨形土器 雜想

굴아화촌(掘阿火村)의 아래뜰(下垆) 전투에서 죽은 '큰손' 대장의 영혼을 저승으로 잘 안내해 가라고 빌면서 오리토기 몇 개를 무덤에 딸려 보냈다. 몇 해 전 그 무덤에 있던 오리 한 마리가 뒤뚱뒤뚱 걸어 나왔다. 천 수 백년이 걸린 모양이다. 함안이나 현풍, 창녕에서 나온 오리와 함께 이제 제법 식구들이 늘어났다. 울산 중산리, 김해 대성동, 부산 복천동, 경산 임당, 포항 옥성리 합천 옥전, 사천 녹도에서 오리가죽들이 출토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들의 고향은 모두 낙동강 어디쯤이다.

오리모양토기들은 모두 부리와 눈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몸통은 간략하게 만들었지만 오리의 모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등에는 원통 모양의 注入口가 있고, 꼬리 쪽은 뚫려 있어 액체를 담아 따를 수 있는 容器의 기능도 지닌다.

瓦質이 주를 이루는 三韓의 오리모양토기는 하대, 중산리, 임당, 옥성리, 복천동38호의 예가 대표적이다. 하대 압수품과 중산리, 임당, 복천동38호 등의 예에서 보듯이 부리는 길고 뚱뚱하여 밍살스러운데 지금도 껍뻍거리는 듯하다. 대롱으로 짐 두 개를 쿡 짚러 코를 뚫었다. 작은 대가리 좌우에는 진흙 고리 두 개를 안경처럼 달아 튀어

나오지도 않은 눈을 끔벅끔벅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정수리에서 목덜미까지는 높고 긴 벼를 세워 위엄스럽게 하였다. 하대32호 단지의 뚜껑에는 암수 두 쌍이 등을 지고 사뿐히 올라앉아 꼭지가 되었다. 사라리55호의 것은 종종걸음으로 어미를 따르고 있는 모양인데, 모아진 두 발의 물갈퀴가 양증맞지만 두 마리 모두 목이 없어 슬프다. 유독 임당 오리만은 길다란 부리 사이가 갈라져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 살짝 웃고 있다. 죽음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미소이리라. 며칠 전 대곡댐 발굴현장에서 만난 오리는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틀고 있어 완벽한 조형미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가 되면 오리모양토기도 대부분 陶質로 만들어진다. 형태상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오리의 원래 품새는 유지된다. 통통한 몸체의 현풍 출토품은 등에 솟은 구멍과 부리를 톱날처럼 마무리하였다. 머리를 약간 숙인 채 한 쌍이 밀어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김천 삼성동 출토한 쌍은 목과 신체 곳곳에 달걀 장식을 달고 서로 뽐내고 있기도 하다. 이 시기의 오리모양토기들의 가슴팍에는 대부분 일렁이는 물살이 표현되어 있다. 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나타낸 성싶다. 금방이라도 놀라서 그 짧은 날갯짓으로 파닥이며 물을 통길 듯하다.

오리는 기원전 3,000년 경 이집트에서 처음 가축화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상형문자에 보이는 오리는 알파벳의 첫 글자 'a'로 읽히며, 그 오리 뒤에 태양의 모양이 추가 되면 '파라오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뜻이 된다고 한다. 깃털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묘사된 메둠의 벽화와 투탕카멘의 stool에 조각된 오리머리, 망사로 된 옷을 입고 오빠를 유혹하는 '사랑의 노래'에 나오는 누이는 아마 오리와 물장구치고 있었지? 오리가 고대 이집트인들과 얼마나 친숙하고 그들의 문화와 밀접하였나를 짐작하고도 남겠다. 석양을 등진 오리의 신비함이 보일 듯하다.

동양에서는 오리가 하늘을 날고 땅을 걸으며 물을 가르다 하여 삼계를 내왕하는 영물로 취급된다. 솟대에 오리가 올라앉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리는 평생 한 마리와 짝을 짓는다고 한다. 한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에 선 부부의 혼례식에 오리를 앞세우는 연유를 알겠다. 물새이면서도 철새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 일정한 계절을 주기로 나타났다 다시 사라지는 철새를 이승과 저승,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神鳥로 보았음직하다.

오리를 죽은 자에게 처음으로 팔려 보낸 우리 조상은 3세기 중반의 변·진한인들이다. 일찍이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에 '큰 새의 깃털로 죽은 이를 보내니 죽은 이의 넋이 하늘을 날도록 하려는 뜻(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이라고 기록하여 두었다.

神鳥로서의 장엄하고 위엄스러움, 목이 잘리고도 어미를 따르는 처연함, 죽음마저 초탈한 야릇한 미소, 장식으로 뽐내고 밀어를 속삭이는 여유로움까지, 이제서야 낙동강 어디쯤 사람들의 오리에 배어 있는 염원을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비는 계속 내렸다.

봄비치고는 처연하다고 할 정도로

빗방울이 굽었다.'

오리를 찾아 나선 주남저수지에도 雲門寺 鵲鳴殿에도 오리는 없었다.

그냥 비만 내리고 있었다.

지난 주말 저녁 月池를 찾았다. 신라가 백제를 멸하고 최고의 국운을 뽐낼 때였지 아마. 망망대해를 앞뜰에 옮기고 三神山의 믿음을 그대로 펼쳐 놓은 이 조그마한 연못. 경순왕이 왕건을 초청해 연회를 베풀던 그 자리. 천년의 사직을 넘겨주며 悔恨하던 곳이다. 월지의 영화가 가고 기러기와 오리만 찾는 황폐한 연못을 아쉬워하던 조선의 선비들은 그래서 雁鳴池라 불렀겠지. 원형을 찾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기러기도 날아들지 않고 오리도 뒤뚱거리지 않았다. 파아란 오월의 상현달만이 서라벌의 향수를 어루만지며 일렁거렸다. 월지에는 달이 잠겼는데, 안압지에는 오리가 헤엄치지 않았다. 우리가 한 짓이다.

오리모양토기를 생각하면서 煩說하였다. ㉓

2003. 5. 13, 雲門



경주 사라리 55호, 길이(왼쪽) 18.2cm, 경주박물관

김해박물관을 찾아서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란 속담을 우리는 많이 써오고 있다. 그 낙동강 오리알을 찾으러 우리 일행은 경비와 시간 절약을 위해 밤 열차를 탔다. 서울역을 출발하여 구포역에 내린 시각은 새벽 3시 40분.

창간호 이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호 특집은 좀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낙동강 줄기를 끼고 있는 구포역에 도착했다. 서울을 출발할 때부터 주룩주룩 내리던 비는 이곳까지 그칠 줄 몰랐다. 이방인의 심사가 이런 것이었던가? 초행길에 비까지 낯설게 만든다.

우리는 먼저 오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주남저수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한 시간 정도 걸려 내린 곳은 동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칙칙같은 어두움. 더듬더듬 기어 제방 위에 올라서니 그 많았던 오리는 한 마리도 볼 수 없고, 빗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 속에서 마음으로만 오리를 보고 가슴으로 오리 소리를 들으면서 바쁜 일정 관계로 발길을 돌렸다.

청도·밀양 등 여러 유적지를 거쳐 도착한 곳은 울산 삼정리. 대곡담을 만드는 이곳에는 800여 기의 무덤이 있는데, 현재 발굴 중인 덧널무덤에서 출토된 硬質오리 한 마리. 국립중앙박물관 원삼국실에 전시해 놓은 오리와 비슷한 형태이다.

흄냄새 물씬 풍기는 문화재 발굴팀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시 먼 길을 달려 김해박물관에 도착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문화권의 유물을 집대성하여 시대별 문화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야문화의 이해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탄생설화가 깃든 구지봉 기슭에 자리한 김해박물관은 철의 왕국 가야를 상징하듯, 철광석과 숲을 이미지화한 검은색 벽돌을 사용하여 지은 가야문화권의 보고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나뉘어 있고, 이 외에 강당·세미나실·뮤지엄숍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선사시대에서 변한, 前期가야를 대표하는 금관가야까지의 문화적 흐름을 살필 수 있게 잘 기획되었으며, 그중 아라가야 전시장





구지봉 기슭에 자리한 국립김해박물관 전경



국립김해박물관 전시실

의 새모양 장식 미늘쇠와 소가야 전시장의 제사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무늬 청동기가 눈에 띄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기획으로 전시했던 『한국 고대국가 형성』에 출품되었던 고성 동외동 출토품인 이 새무늬 청동기는 전시장 한가운데 단독으로 전시했을 만큼 주목을 끌었던 작품으로 기억한다. 큰 새 두 마리를 중심으로 42마리의 새를 조각한 이 작품을 보면서 오리나 새나 같은 鳥形으로 보았다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며 각 지역별로 형성된 가야의 유물들을 살펴보았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999년 『가야의 그릇받침전』과 2000년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전』, 2002년 『한국고대의 갑옷과 투구전』을 특별전으로 개최해 우수한 가야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외에 널리 소개했다. 또한 해마다 다양한 강연회, 사회교육, 문화행사 등을 실시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가야 문화권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 연구, 보존을 통해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인다고 한다.

박물관을 사랑하는 분들, 특히 우리 일행을 위해 중일 빗속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녁시간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마저 왜 이렇게 정겨운지……. 오늘의 이 감동을 잘 전달해야 할텐데.

아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자. [가기](#)



미늘쇠 : 5세기, 함안 도항리,
길이 35.9cm, 너비 10.2cm



새무늬 청동기 : 4세기, 고성 동외동,
길이 8.9cm, 너비 6.4cm

개성박물관

김재원 | 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

開城에는 해방 전부터 府立博物館이 있었다. 부여·공주·경주박물관을 통합하여 국내 주요 박물관이 모두 새로된 국립박물관의 산하에 들어왔는데 개성부립박물관도 국립박물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46년 봄 나는 개성으로 갔다. 그곳에서 개성유지들과 대면하여 개성박물관을 국립박물관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전하였다. 처음에는 약간의 반발심도 있었던 모양으로 그 지방유지의 한분인 孔聖學 씨가 나와서 그때 37세인 국립박물관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실은 부립박물관이라고는 하나 그 진열품은 대부분 서울박물관에서 빌려준 것인데, 나는 그 빌린 물건들을 고스란히 개성에 둘 것이고 서울박물관의 분관이 되더라도 현재 걸려 있는 박물관이라는 현판(孔聖學筆)도 그냥 둘 것이며, 따라서 실질상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리라는 등등을 약속하였다. 이리하여 개성시민들과의 대결은 원만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얼마 후에 새 분관장으로 秦弘燮 씨를 임명하였다. 그는 상당히 부유한 집 출신이고 비록 고고학이나 미술사를 전공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출신의 유능한 사람으로 추천되었던 것이다.

이때를 전후하여 개성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그들의 간이병사(콘셋트)를 滿月臺에 만들기 시작하였다. 만월대는 옛 고려궁전이 있던 자리이다. 비록 표면에는 많은 유구가 없었으나 그곳은 중요한 고적으로 개성시민들이 큰 애착을 가지고 있던 곳이다.

“만월대를 파헤치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시민들이 떠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곧 미군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 “표면에 별 것이 없는데 후에 원상태로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역사가 짧은 그들이 만월대의 의의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때마침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워너 교수가 볼스 박사와 같이 왔다. 동양문화와 미술에 관심이 많은 그들은 곧 지프를 몰아 만월대에 가서 상호간의 몰이해에서 자칫하면 불행한 사태로 변질 뻔한 일을 선처하여 주었다. 그들은 동경 총사령부에 건의전문을 보냈고, 동경 총사령부에서는 서울 8군사령부에 즉각 간이병사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1949년 여름 개성에서는 소위 松嶽山事件이라는 것이 터졌다. 38선이라는 선은 개성 북쪽에 있는 송악산봉 위로 지나가는데, 그곳에서는 개성의 시가가 한눈에 보였다. 그 때문에 그쪽과 남쪽 사이에 포격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나 그 여름의 송악산사건은 특별히 심하였다.

나는 개성박물관이 위태롭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는 진열품(대부분 고려자기)을 서울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李弘植 씨와 閔天植 씨를 대동하고 가서 그들 물건을 서울로 옮겨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秦弘燮 관장은 한사코 반대하였다. 만약 이 사실을 개성시민이 안다면 크게 인심이 소란하게 되고 자기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강행하기로 하고 崔熙淳(淳雨) 씨 외 몇 사람을 다시 개성으로 보내 중요한 진열품의 대부분을 귀짝이나 룝색에 넣어서 개성에서 8km 가량 떨어진 鳳東驛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기차로 몇 차례에 걸쳐 서울에 옮겼던 것이다. 개성역은 송악산에서 사정 거리 안에 드는 좋은 목표이고, 또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박물관도 역시 포격에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진열품을 옮기는 날도 가끔 포탄이 날아왔는데 砲煙의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큰 일을 해치웠던 것이다.

다만 문화국장 趙根泳 씨는 문교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물을 옮겼다고 노발대발하였고 시말서를 쓰라고 야단쳤는데, 나는 같은 박물관 안 물건을 옮기는데 무슨 사전승략이냐고 맞서기도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아침 5시 시민들이 아직 깨어나기도 전에 개성시를 점령하였다. 모든 것은 다 그들이 차지하였으나 개성박물관의 도자기·불상·회화 등등이 있었던 진열장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 『경복궁야화』 중에서

水晶紀念室의 소품들

고 광 직 | 회원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1층에 있는 수정기념실은 내가 즐겨 찾는 곳이다. 미소를 머금은 채 관람객을 맞고 있는 수더분한 모습의 水晶 朴秉來(1903~1974) 선생의 浮彫를 보며 입구에 들어서면 필통, 연적, 祭器, 병, 향아리, 접시 등 50여 점 소품의 백자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큼지막하거나 화려한 기교를 부린 도자기는 한 점도 없다. 자그마한 순백자, 靑華에 부분적으로 銅彩, 鐵彩를 입힌 백자들이 주는 느낌이 정갈하고 한없이 정겹기만 하다. 수집품에도 수집가의 인품이 배어 있는 때문일까.

내가 水晶 선생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1980년 말에 나온 그분의 저서 ‘白磁에의 향수’를 읽고 나서 부터였다. 특별히 감명깊게 한 것은 그분의 보기 드문 문화재 사랑과 깔끔한 수집자세였다. 그분의 수집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 무렵부터였을 것으로 기억한다.

수정선생이 수집한 도자기는 청화백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는 18~19세기 廣州 金沙里 가마, 分院里 가마의 단아한 작품들이 많아서 조선시대 백자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집품들 가운데 白眉로 꼽히는 것은 문방구류인 硯滴, 筆筒들이다. 거북이, 닭, 토끼, 두꺼비, 복숭아, 용, 해태 모양의 연적들은 우선 종류도 다양하고, 그분의 말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연적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희귀한 붉은색의 ‘辰砂硯滴(白磁陽刻辰砂彩雙鶴文方形硯滴)’이다. 수정 선생이 ‘내가 참으로 아끼는 귀물’이라고 했던 진사연적은 해방 전에 사들인 것으로 ‘眞紅沙器’로 불려왔던 도자기다. 크기는 보통 연적과 다를 것이 없지만, 사각의 全面을 싸고도는 진홍색 진사의 빛깔과 입을 딱 벌린 두 마리의 학이 환희를 표현하듯, 날개 끝을 맞대고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도안이 이색적이다. 공기구멍이 뚫린 윗부분의 陽刻된 학들만 푸른색이 도는 백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辰砂彩로 칠해 색깔의 조화도 돋보인다.

이 연적은 일본인 골동상이 당시 거물급 수집가의 한 사람이었던 滄浪 張澤相 씨에게 먼저 가져갔다가 삼백 원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백 원 대신 골동을 하나 주겠다고 하는 張씨의 제안을 거절해 버리는 통에

수정 선생 수중에 굴러들어 왔다. 수정 선생은 “그후 5개월 동안 연적 값 사백 원을 갚느라고 혼줄이 났다”고 적어 놓았다. 해방 뒤 滄浪이 외무부장관 시절에도 수정만 만나면 이 연적을 양도하라고 졸랐지만 끝내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滄浪에게 진사연적을 넘겼다면 지금 이 연적이 어느 곳에 가 있을지 궁금하다.

수정기념실에서는 이밖에도 그분이 엮은 회백색 빛깔과 청화로 그려진 七寶文과 秋草文의 담백한 필치, 그리고 병의 목선이 아름답다고 은근히 자랑한 ‘靑畵白磁蘭草文瓢形瓶’도 볼 수 있다. 팔 면 항아리 위에 둥근 병을 엮은 모양이다. 골동상인들이 산 값의 여섯배를 더 주겠다고 팔라고 성화를 부려도 끝내 팔지 않았다는 靑華白磁角瓶도 전시실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소박하고 고아한 자기에서 느끼는 정취가 권태로운 일상생활로 해서, 부질없이 흔들리기 쉬운 인간의 심사를 다잡아 주는데 더없는 길잡이였다고 느끼고 있다. 또 有形의 자기그릇을 통해 옛날 선인의 無形의 마음을 짚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한결 기꺼운 일의 하나였다”

수정 선생이 남긴 이런 글줄을 떠올리며, 사랑의 손길이 어려 있는 수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분의 백자사랑 철학의 윤곽이 드러난다. 연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지작거리던 일이라든지, 항아리를 머리맡에 놓고 자던 일이 자신에게는 ‘삶의 양념’이 됐다는 표현에서도 그의 백자사랑의 정도를 읽을 수 있다.

수정 선생은 골동을 모으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돈으로 바꾸거나, 모아서 재산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변변치 못한 컬렉션’이지만 옆에 두고 볼 수 있었던 것만도 큰 행복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50여 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40년 동안 분수에 맞게 모아 기증한 362점의 수집품이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잘 보존하여 여러 사람이 보게 되기만을 바랐다.

내가 수정기념실 수집품에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넉넉한 여유로 匠人의 마음까지 짚어내 수집할 가치가 있는 것만 모아들인 수정 선생의 예리한 審美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㉟



백자양각진사체쌍학문연적
19세기, 높이 5.2cm, 중앙박물관(수정 354)



청화백자난초문표형병
17세기 말~18세기 초, 높이 21.1cm, 입지름 3.7cm,
보물 1068호, 중앙박물관(수정 111)

낙랑전실묘의 지역성과 연대

오 영 찬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樂浪郡은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 313년까지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 설치된 중국의 郡縣이다. 종래 빈약한 문헌자료와 일제시기 발굴자료에 대한 不備한 연구성과로 낙랑군을 漢帝國의 식민지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해방 이후 축적된 발굴자료들은 中原文化와 樂浪文化를 단순비교하여 동일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묘제를 기준으로 낙랑문화-3세기 초 帶方郡의 설치를 포함하여-를 거시적으로 구분하면 기원전 1세기대는 목곽묘시기, 기원 1세기대는 귀틀무덤시기, 기원 2세기 중후 이후는 塋室墓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문헌자료가 빈약한 낙랑군 연구에서는 고고학자료 특히 발굴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묘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분묘자료의 변화 추이 및 중원자료와 비교 등은 낙랑군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공개된 낙랑군시기 전실묘 자료를 集成·整理하여 전실묘의 분포와 지역성, 연대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황해도 전실묘의 전개양상을 帶方郡 設置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설명해 본다.

분포와 지역성 | 낙랑군이 설치되었던 서북한 지역의 묘제는 목곽묘·귀틀무덤·전실묘로 대별되며, 대체로 시간적인 흐름과 일치한다.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각 묘제별 분포양상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목곽묘는 서북한 전역에 분포하는 반면 귀틀무덤은 평양 지역에 집중되다가, 다시 전실묘는 서북한 전역에 확산되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전실묘의 분포와 변화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 지역인 평양과 주변 지역인 평안도·황해도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평양 | 평양특별시 대동강 남안의 낙랑구역 일대에서는 3,000여 기에 달하는 낙랑고분이 발굴조사되었다. 전형적인 귀틀무덤은 벽돌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만으로 축조했다. 귀틀무덤의 매장주체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벽돌을 사용한 무덤들이 축조되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귀틀곽이던 매장주체부를 벽돌로 축조한 것들이 등장한다. 이런 묘제를 벽돌귀틀무덤 또는 벽돌곽무덤으로 부른다. 이런 과도기를 거쳐 궁륭상 천정의 전형적인 전실묘로 이행한다.

中原지역에서 전실묘는 전한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해 중원 전역에 전파 축조되는데, 낙랑전실묘와 가장 큰 차이는 천정부가 아치형이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후한 중기 이후 궁륭상천정이 일부 도입된다. 낙랑의 전실묘는 대부분 궁륭상천정이지만, 석암리 224호분이나 상원군 상원읍 전실묘는 중원처럼 아치형 천정의 전실묘가 확인된다. 이것으로 서북한 지역에서도 목재만을 이용한 귀틀무덤 이후 점차 벽돌을 이용하다 아치형 천정의 전실묘로 이행하는 흐름을 상정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궁륭상천정의 전실묘로 이행한다. 따라서 평양일대에서는 귀틀무덤에서 궁륭상천정의 전실묘로 이행하는 과정이 점진적이고 계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평안도 | 평안도 지역의 발굴조사 자료는 강서군 태성리 5호분과 박천군 덕성리 고분의 두 가지 예 뿐이어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덕성리고분은 청천강 이북에서 발견한 최초의 전실묘로 후실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다. 황해도 전실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시기가 늦은 3세기 중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평양을 중심으로 낙랑군의 세력이 재정비되면서 전실묘가 청천강 이북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태성리 5호분이 있는 태성리고분군에는 전실묘 뿐 아니라 목곽묘, 고구려시기 석실분이 함께 있다. 태성리 5호분의 축조세력도 목곽묘 단계 이래 在地的 기반을



평양 대동강 남쪽의 낙랑 토성·고분 분포도

유지하다, 낙랑군이 재차 정비되던 시기에 평양일대 전실묘의 영향을 받아 전실묘를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해도 | 황해도 지역에서 발굴한 사례는 현재 13기에 불과하지만, 명문이 있는 벽돌의 출토지점을 전실묘의 분포지로 인정한다면 그 예는 크게 증가한다. 다행히 무덤 내에서 기년명 벽돌이 출토되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있어 전실묘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신천군 봉황리1호분(248년), 추릉리고분(283년), 봉산 태봉리 1호분(348년), 永和9年銘磚 출토무덤(353년) 등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통해 궁륭상 천정에서 石蓋천정으로 변하는 점, 單室墓의 묘실 형태가 正方形보다 長方形이 시기적으로 늦다는 점, 313년 낙랑군 멸망 이후에도 전실묘가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황해도의 전실묘는 평양과는 달리 과도형이 없고, 출발부터 완성된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황해도에서 시기가 비교적 빠른 유적은 양동리 3·5호분인데 모두 궁륭상천정 구조에 側室을 가진 二室墓이다.

양동리 3·5호분이 소재하던 鳳山郡 養洞里 일대는 낙랑군 군현지배의 이완에 따라 지배력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던 상황에서 韓濊의 이입이 빈번하다가, 公孫康이 204년-207년경 帶方郡을 설치하면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군현지배체제를 새로 정비해 나갔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養洞里 3·5호분의 축조연대를 2세기대로



황해도 봉산군 양동리 3호분(1917년 조사)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방군 설치 이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연대 | 기존 연구에서 전실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무덤의 평면형태는 정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벽면의 처리는 직선에서 弧壁으로 변하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전실묘에서 장부를 지닌 벽돌[장부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실묘의 상한연대는 1세기 전반(강현숙), 2세기 전반(한인덕), 2세기 후반(홍보식, 田村晁一) 등으로, 하한연대는 3세기 중엽(한인덕), 4세기 중엽(田村晁一)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기년명 벽돌을 통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전실묘를 통해 대체적인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三國志』 韓傳에 묘사된 荒地 기사를 통해서도 황해도 전실묘의 상한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정백동 31호분에서는 기원 195년의 기년명전이 출토되었다. 전형적인 전실묘에서 출토되는 연호문경의 형식을 통해 볼 때 2세기 중후반 경으로 보면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백리 24호분의 夔鳳鏡, 대동강면 甲墳의 鐵鏡, 도제리 50호분의 鐵鏡, 석암동 고분의 盤龍鏡 등 고분출토 환경의 연대를 통해 볼 때 단실구조의 전실묘는 기원 3세기대에도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황해도 지역이기는 하지만 신천 봉황리 1호분의 절대연대(248년)가 방증한다.

일반적으로 전실묘는 형식상 單室墓와 二室墓로 구분한다.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3·4세기의 전실묘에 단실묘와 이실묘가 공존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계기적인 발전관계를 통한 시기적인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형식차에 대해 계층차일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아직 계층차나 계보차, 또는 다른 배경요인을 설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실묘의 경우에도 절대연대를 지닌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보고된 봉산군 양동리 3·5호분은 연대추정에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 유사한 형식의 이실묘에서 漆製 또는 土製의 제사용기들이 출토되고, 칠기가 앞 시기 귀틀무덤에서 다수 부장된 것으로 보아 같은 용도의 경우 칠기에서 토제명기로의 변화추이를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북한 지역 전실묘의 분포특징과 지역성, 그리고 연대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평양 일대에 집중된 귀틀무덤과는 달리 전실묘는 황해도 일대까지 널리 분포하고, 평양 일대에서는 기원 1세기 중반 이후 귀틀무덤에서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출현하는 반면 황해도 일대에서는 기원 3세기 초 완성된 형태로 출현한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대방군의 성립과 지배 구조에 대한 논의는 별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의 요지입니다.



평양 도제리 50호분(1935년 조사)

젓꼭지가 네 개?

전 경 수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물관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물창고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교육이다. 박물관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온 사람들은 이미 20세기 전반에 전자는 舊博物館이고 후자는 新博物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이 간략하게 본 박물관의 역사다. 소수를 위한 시설로부터 다수를 위한 시설로 개념 전환을 했다. 우리에게도 유사한 걸음걸이를 해 온 박물관의 역사가 있다. 朝鮮總督府博物館이 전자의 기능을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박물관은 후자의 역할을 향한 진행형이라고나 할까.

사회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박물관대학(특설강좌·연구강좌)에 강의를 핑계로 관계를 맺어온 나의 역사도 이십 년에 근접한다. 강사들 중에서도 아주 고참에 속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자부심은 박물관대학에 참가하는 분들과 그분들의 열의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박물관대학의 강의 중에서 한 번도 재미없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기백 명의 수강생이 앉은 대강당에서 한 번도 조는 수강생을 본 적이 없다. 그 열기가 나로 하여금 '원맨쇼'를 해내도록 유도한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래서 박물관대학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나의 어설픈 지식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수강생도 있고,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년전에 나는 '홉팬지'(humpanzee=human+chimpanzee)라는 신조어를 개발했다. 가령 사람과 생화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 사이에 교배가 가능한 것인가. 종이 다른 말(馬)과 나귀(驢) 사이의 교배로 인해서 노새(驘)와 버새(菊尾)가 출생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다. 사람과 동물의 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젓꼭지가 여덟 개인 사람의 경우

에 대해서 과거에 읽었던 대로 전달했다. 그날 저녁 나에게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參與觀察을 중시하는 인류학자로서 젓꼭지가 '이상하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보고 얘기하는가 하는 질책이었다. 참지식을 채근하는 요구였다. 간접적으로 읽은 알팍한 지식으로 나섰다가 혼이 난 셈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 분은 자신에게 네 개의 꼭지가 있으니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래야 앞으로 강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라는 논리였다. 딱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젓꼭지가 넷인 여성을 볼 수 있었고, 성년이 되어 가는 그녀의 딸도 네 개의 젓꼭지가 있다는 얘기도 곁들여서 들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젓을 먹일 때는, 엑스트라의 두 젓꼭지도 함께 부풀어 오르더라고 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 이후로 나는 더욱더 심층적인 자료를 찾아 나서게 되었고, 이제는 젓꼭지에 관한 확실한 참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강의란, 교육이란 이렇게 쌍방의 교류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절감하였다. 나는 박물관대학을 십수 년 다니면서 정말로 값진 경험을 했다. 내가 어설프게 알았던 지식들을 확실하게 버려내는데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강의란 재미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도 터득할 수 있었다.

박물관은 학자들만을 위한 조직도 아니고, 보물들만을 위한 조직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박물관이 존재하는 중간과정의 수단이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박물관의 존재이유는 사회교육에 있다. 세금을 내고 박물관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로부터 박물관의 존재이유가 찾아질 수 있다. 그 방법은 사회교육으로 함축된다. 박물관대학과 같은 사회교육의 기능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질적으로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앞으로 남은 우리나라 박물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대학이 그 해답을 안고 있는 조직이다. 박물관대학이 박물관의 미래를 담보하는 보물인 셈이다. ㉞

전시실에서 만난 사람들

이 향 우 | 전시실 자원봉사

2002년 5월부터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나처럼 공부가 모자라는 사람이 봉사를 한다는 것이 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물관에 가서 옛사람들의 손길을 만나고, 그 오랜 역사를 읽고 싶은 욕심 또한 뿌리치기 어려워 용기를 내어 시작한 봉사활동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예상조차 않은 즐거움이 있다.


얼마 전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친구의 조카가 박물관을 찾았다. 남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박물관에 들렀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참 기특한 생각을 지닌 학생이었다.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하느라 두 눈이 초롱초롱했다. 그날의 만남은 두고두고 흐뭇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지난 4월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아주 특별한 손님이 박물관을 찾았다. 수도권경비사령부 소속 군인 150여 명이 박물관 로비에 집결했다. 우산 대신 우의만 입고 있어 모두 비에 젖었지만 절도 있게 움직이는 장병들을 보면서 잘 자란 푸른 소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을 보면서 군에 간 둘째 생각이 났다. 실은 그날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은 내 아들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안내를 했다. 경복궁과 박물관을 묶어서 정신교양활동을 기획한 담당 중위의 생각이 참신하게 느껴졌다. 전에는 주로 전쟁기념관 등 군사활동과 관계 있는 장소를 택했는데 박물관 답사는 처음이라고 한다. 내가 맡은 팀은 아래층 도자기실로 갔는데, 청자·분청사기·백자의 편년과 제작과정의 특성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의 눈빛이 상당히 진지하며 흥미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질문이 없던 사병들도 인솔장교나 동료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함께 호기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눈빛 날카로웠던 우리의 아들들이 옛 조상의 슬기와 빼어난 솜씨에 감탄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우리 봉사자들이 안내를 하면서 심심치 않게 받는 질문이 그날도 나왔다. 열심히 설명을 듣던 사병과 장교가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든

것은 얼마나 합니까?” 아주 잘 만든 작품이라고 했으니 가격을 묻는 것은 당연한 호기심인데,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으니, 과연 국보급 문화재를 돈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온 교사의 엉뚱한 고집으로 난처했던 일 하나. 이번에도 만만찮은 160명의 인원이 안내를 예약했다. 안내요청 시간은 한 시간. 그들은 한 시간 뒤 민속박물관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인솔교사는 원하는 시간 안에 박물관의 모든 전시실을 다 안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학생들이 안내를 원하면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특성상 전시실 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했다. 교사들 대부분이 우리 이야기에 수긍하고 학생들을 실별로 분배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학급만은 모든 전시실을 다 관람해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박물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으로 책정되었다면서요. 그것은 그냥 유물을 보여주지만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도 오늘 박물관에 왔으니까 전체를 공부하고 가야합니다. 한 시간 안에 모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는 정말 난감하다.

간혹 개별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중에는, 날을 잡아서 왔으니 모두 보고가야 한다고 아이를 다그치는 사람도 있다. 아이는 이미 물먹은 솜처럼 지쳐서 다리를 끌며 진열장을 훑고 지나간다. 아무래도 몇 시간을 할애했으니 욕심을 부릴 만도 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다리는 호기심에 앞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수업 이외에도 특기교육이나 과외학습으로 얼마나 바쁜가. 그나마 자녀와 함께 박물관에 온 부모는 우리문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다.

박물관은 전시실 밖의 바쁜 시간과는 상관없이 몇 십만 년의 세월이 정지되어 우리 앞에 놓여진 공간이다. 그곳에서는 선사시대의 구석기인도 만날 수 있고, 고구려인과 만주별판을 가로지를 수도 있으며, 청자나 백자를 굽던 도공의 물레질을 볼 수도 있고, 단원 김홍도나 추사 김정희와 함께 할 수도 있다. 박물관에 와서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유물에 담긴 세월을 읽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확한 편년이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보다는 우리 문화의 큰 흐름 속에 묻어나는 향기를 느끼는 것이 더 소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관람객에게는 슬쩍 내 존재를 숨겨 지나가곤 한다. 



남원대사오진탑비 이수

강릉지역을 돌아보고

이 주 희 | 회원

이른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가 새로 움을 틔우는 봄날의 강릉은 소생과 희망의 땅은 아니었다. 작년 여름 홍수와 태풍 루사가 할퀴 상처가 미처 아물지 못하고 곳곳에 흉터를 드러내고 있었다. 溟州郡王陵과 普賢寺가 있는 滿月山을 오르는 길은 복구가 덜 되어 버스가 계곡으로 곤두박질칠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다. 주인이 떠난 폐가와 주위의 잘 손질된 무덤과 온 산을 뒤덮은 연녹색 잎새와 알록달록한 봄꽃을 보니, 시인 윤재철이 「생은 아름다울지라도」에서 노래한 생의 엄연함이 와닿았다.

溟州郡王陵은 新羅 太宗武烈王의 5대손이며, 강릉 김씨의 시조인 金周元의 묘로 三王陵의 하나라고 한다. 입구에 三王寺와 陵享殿 崇義齋와 溟州碑閣이 있고, 매월당 김시습의 영정을 모신 淸簡祠가 있었다. 능향전 옆의 홍살문으로 들어서니 사찰에나 있음직한 일주문을 닮은 석물 한 쌍이 서 있었다. 삶에서 죽음으로 입문할 때 으레 거쳐야 할 통과 의례를 관장하는 십대왕의 앞을 지나는 듯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봉분으로 오르는 길엔 할미꽃이 지천이었다. 宣德王이 후계자 없이 죽은 후 왕위 계승 다툼에서 元聖王이 된 金敬信에게 밀려나, 서린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저렇듯 많은 할미꽃으로 피어났을까. 한과 분을 풀지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이느라 붉어진 속살을 감추려고 뽀얀 솜털로 감싸고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안스러웠다.


왕릉은 다른 부부의 묘처럼 합장한 어울무덤이 아니라 各葬한 홀무덤이었다. 또 두 봉분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묘는 앞에 왕후의 것은 뒤에 층지어 자리잡은 것이 특이했다. 산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풍수에 따른 관습에서 그리한 것 같았다.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명주군왕을 시조로 모시고, 현실에 순응하지 못해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방외인으로만 떠돌던 천재 김시습을 기리는 강릉 김씨들에게서 비굴한 승자보다는 의연한 패자의 꼴꼴함과 당당함의 일면을 보았다.

보현사로 가는 길목에서 浮屠들이 도열하듯 서 있는 곳을 보자, 텔레비전과 책에서 본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이 떠올랐다. 부도의 두툼한 지붕돌이 모아이 석상의 푸카오라는 돌모자처럼 투갈스럽고 푸근했다. 역대 왕들에게 물려받은 신성한 힘 마나(mana)를 지닌 수

호신의 역할을 했던 석상들이 신을 위한 야외성소 야후에 서서 우리를 굽어보며 지켜주리라는 신념과, 온갖 고행을 참아내며 수행정진한 선승의 덕을 숭앙하고 우리의 소원성취를 위하여 대신 빌어줄 것을 믿는 마음이 비슷하다고 여겨졌다. 郎圓大師悟眞塔에 이르는 산길은 풀냄새와 꽃냄새, 흙냄새가 한데 어우러져 진한 더덕향기를 뿜어냈다. 향긋한 산내음과 상큼한 공기가 몸을 뒤발하였고, 산의 정기를 흠뻑 들여마시니 미끄럽고 험한 길이 힘들지 않았다.

산마루에 있는 郎圓大師悟眞塔과 보현사 입구에 세운 郎圓大師悟眞塔碑를 둘러본 후, 경포호수 맞은편 소나무 숲 속에 있는 蘭雪軒 許楚姬 생가에 들렀다. 입구에 있는 許筠의 詩碑에는 湖亭이라는 시가 새겨 있었다. 생가는 작년 장마에 많이 훼손되었는지 방바닥과 구들장 등이 파헤쳐져 수리 복구 중이었다. 소설가 蛟山 許筠의 누이인 난설현은 三唐시인의 한 사람인 蓀谷 李達에게 시를 배웠고, 金誠立과 결혼했으나 편편찮은 삶을 살다 27세로 요절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난설현 414주기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기웃거리며 아는 체하고 싶었지만 200수가 넘는 난설현의 시구 하나 암송하지 못하고, 초대시인인 함혜련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먼 발치에서 마냥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淡粧한 여인의 수수한 얼굴처럼 조촐하고 아담한 안뜰을 보며, 난설현의 고달프고 지난했던 삶을 생각해 보았다. 작은 나라인 조선에 태어난 것과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이상에 맞는 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세 가지 한을 품고 살다가, '夢遊廣桑山詩'에서 "스물 일곱 송이 아름다운 연꽃 / 달밤 찬 서리에 붉게 떨어졌네"라고 노래한 것처럼 스물 일곱 가까운 나이에 경기도 광주 초월면에 묻힌 난설현이 요즈음 태어났다면 文才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려와 조선시대에 관사로, 국왕의 殿牌를 모시고 向闕望拜하며 중앙관리가 유숙하던 강릉객사 臨瀛館 터에 갔다. 정문인 客舍門에는 공민왕 친필의 편액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은 임진왜란 직후 경주에 있던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옮겨와 모셨던 集慶殿도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되었다.

하루종일 눈개와 보슬비가 오락가락하는 봄날 있었던 답사였다. 우리것을 안다는 것과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번 답사가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우리것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피로한 중에도 보람이 있었다. 



낭원대사오진탑
고려 태조 13년(930) 경, 높이 2.5m,
보물 191호

특별전 안내

첫 번째 통일 새로운 나라 特別展 『統一新羅』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획전시실 I에서 특별전—첫 번째 통일 새로운 나라—『統一新羅』를 열고 있다. 이 전시는 1992년에 열린 고고부 특별전 『韓國의 靑銅器』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時代文化 전시’의 연속선상에 있다. 신라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왕경과 지방을 새롭게 정비하는 모습, 고신라에 비해 발전된 생활문화와 화려한 불교문화 그리고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 통일신라를 보여준다.

신라는 삼국통일을 준비하며 나라 안의 체제를 단단히 갖추고 점차 영토를 넓혀간다. 신라는 唐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다시 당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삼국통일전쟁을 마무리했다. 신라는 통일과정에서 고구려·백제의 백성들을 포용하며 그 문화를 폭넓게 수용했고, 통일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전성기의 당나라문화를 받아들여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민족문화를 꽃피웠다.




북한산진흥왕순수비(국보 제3호)



성덕왕릉십이지상(원숭이)

이 전시의 주제는 통일·문화·국제성 세 가지이다. 전시구성은 신라의 6부를 상징하듯 6부로 나누었다. 전시장 입구에서는 진감선사비에서 집자한 고운 최치원의 統一新羅 글씨와 성덕대왕릉 신상의 이미지를 만나고 난 뒤, 기와집 사이의 골목길로 접어들면 통일신라의 멸망시기인 10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6세기에 이르러 북한산진흥왕순수비(국보 제3호)를 만날 수 있다.

제1부 ‘통일로 가는 길’에서는 신라영역의 가야·한강유역의 확장과정을 보여주고, 제2부 ‘중앙과 지방’에서는 왕경의 도시정비와 함께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재편하는 등 새로운 국가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제3부 ‘생활문화’에서는 통일신라 토기·뼈항아리·기와·벽돌 등과 생활유물, 농기구·제철 등의 생산관련 유물을 선보이고, 제4부 ‘부처님의 나라’에서는 빼어난 조형감각으로 만든 통일신라의 불상과 화려한 사리장엄구 등을 전시한다. 제5부 ‘국제감각과 대외교류’에서는 중국·일본·서역과 관련된 유물들을 비교전시하며, 제6부 ‘호족의 성장과 후삼국’에서는 각 지역 호족의 성장과 선종의 확산과 관련된 명문와·탑지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전시 보조자료로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절정인 ‘석굴암’의 영상패널과 ‘통일신라를 발굴하다’라는 고고학 관련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영한다. 전시실 마지막 부분의 신라의 종말을 상징하는 포석정의 이미지는 천 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뚫고 다시 현대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며, 전시실을 떠나는 관람객을 토옹들이 아쉬운 듯 배웅한다.

이번 전시는 부분적으로 연구되었거나 이미 알려져 있던 통일신라의 대표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에게는 발전된 통일신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학자들에게는 선사와 고대에 머물러 있던 고고학의 지평을 중세로까지 넓혀주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울러 특별전 『統一新羅』를 통해 우리 민족사에서 ‘統一’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룬 통일신라 ‘文化’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 



삼채배단지(경주 조양동 출토)

국립박물관 특별전 일정

국립중앙박물관

가네코 기증유물

7. 22(화) ~ 8. 17(일)

동남 아시아 각국에서 수집한 문화재를 통해 아시아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비교·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불교회화 명품

9. 2(화) ~ 10. 5(일)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회화를 중심으로 '지옥과 정토'라는 주제로 분류·전시해 감상하며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국립경주박물관

신성상의 전래 - 한국과 일본의 초기불교미술

4. 8(화) ~ 6. 22(일)

경주박물관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이 공동주관하는 전시로, 한국과 일본에서 6~9세기에 제작된 불교미술품을 전시한다.

첫 번째 통일 새로운 나라 - 통일신라

7. 29(화) ~ 9. 14(일)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첫 번째 통일 새로운 나라 - 『통일신라』를 이전 전시한다.

국립광주박물관

빛을 그린 화가 오지호

7. 15(화) ~ 8. 31(일)

우리나라 서양화단에서 민족정서에 기반한 한국적 인상주의를 개척하고 실천한 오지호의 회화세계를 조명한다.

국립전주박물관

대한제국기 고문서

5. 22(목) ~ 7. 6(일)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뀌는 조선사회의 혼돈상황을 당시의 숨결이 묻어 있는 고문서를 통해 살펴본다.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의 도량형

7. 22(화) ~ 9. 19(일)

도·량·형을 각각 소주제로 나누어 백제 도량형 관련 문화재와 기초자료를 전시한다.

국립김해박물관

변진한의 여명

9. 25(목) ~ 11. 9(일)

청동기에서 삼한시대로의 전환기에 변진한 지역(영남)의 시대상을 토기 등 고고학 유물 중심으로 조명한다.

국립제주박물관

사찰 꽃살문

6. 13(금) ~ 7. 20(일)

한국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소사·송광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 꽃살문을 관조 스님의 사진작품으로 감상한다.

표류인과 표류문화

8. 8(금) ~ 10. 12(일)

하멜 제주도 표착 35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끊임없이 있어 온 표류인과 표류문화를 재조명한다.

국립춘천박물관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의 세계

9. 9(화) ~ 10. 12(일)

영월 창원리 창녕사지 나한상과 일본 지은원소장 오백나한도 등 150여 점을 전시해, 나한신앙과 더불어 우리의 불교문화를 소개한다.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와 박물관 사진

9. 1(월) ~ 9. 30(화)

70년대 이후 공주박물관의 현판과 인쇄물, 유물대장 및 카드, 신축박물관의 조감도 등을 통해 공주박물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본다.

새 박물관 조감도

비추홀(가칭)

창을 통해
하늘과 통하는 공간

어린이 마당

어린이들의
문화체험 및 휴식공간

서관

사무실과 대극장,
어린이 박물관, 도서실,
보존과학실 등
박물관의 중추적 공간

주차장

승용차 768대
대형차 80대

매표소 및 기념품점

열린 마당

박물관의 출입구로
문화로 향한 열린
공간이며, 만남의 장

모두마당(가칭)

야외공연 및
소규모
모임의 공간



MUSEUM

등관

전시를 통해 문화를 배우는 학습공간

거울못

수면을 거울로 삼아 역사를 비춰보는 곳

매표소 및 커피숍

야외 전시장

산책을 하면서 석조유물을 관람하는 공간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걸어온 길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兪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회원·평생회원·영구회원·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회원·금관회원·은관회원·청자회원·백자회원이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사람은 평가·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8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연구지원** | 발굴조사, 학술연구 조성비,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학술연구 활성화를 돕고 있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하고 있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 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과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을 구입 기증했다.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실측, 토기편 맞추,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회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2004년 ICOM서울총회 자원봉사**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 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 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특별전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 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터디그룹을 통합·재편해 운영하고 있다. 한 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하고 있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편집회원들을 보면서 나는 어린 연두빛 새싹이 질푸른 녹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숲속에서 사색에 잠겨본다.(기)

잠시도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박물관회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박물관회지. 화요일이 기다려진다.(은)

멋있는 6월,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6월이다. 우리 모두 행복을 맞읍시다.(련)

관련자료도 얼마 없다는 특집 테마를 정할 때의 암담함에서 이리도 뿌듯한 결실을 만들어 내다니... 문득 어느 老대통령의 금구 한 귀절이 생각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화)

편집기획안을 보고 또 보며 생각하니 느낌이 와요. (水)

안개비 내리는 운문사의 아침. 龍鳴殿의 사천왕님들은 노송아래서 모여 무슨 말씀하실지... 두 번째가 처음보단 쉽다네. (산)

오리가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뒤뚱뒤뚱... (娥)

짜얌은 오리의 눈물인가보다. 처절하게 비를 맞으며 차도를 가로막은 한 마리 오리. 주남저수지에서 우릴 만나러 왔을까... 망해사 가던 날. (경)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2호

발행일 | 2003년 6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유상옥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김기자 김은희 김혜련 손이화 유건집 최경자
 디자인 | 전영랑
 진행 | 이홍표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그림 이야기

蔚山 下垞에서 출토한 한 쌍이다. 압수품이어서 정확한 출토양상은 알 수 없지만 臺附壺, 兩耳附壺와 함께 출토되었다고 하므로, 3세기 말~4세기 초에 성행한 후기 와질토기의 여러 器種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부리는 장방형으로 짧고 직선형이며, 깃은 머리에 비해 매우 높게 강조한 편이다. 먹이를 구하거나 끼리끼리 遊戲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고개를 들어 근엄하게 멀리 응시하는 생김새에서 死者의 영혼을 인도하는 엄숙함이 보인다. 容器이지만 어떤 날짐승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관념을 부가하여 형상화한 것이 분명하며, 원초적인 모델은 오리인 것 같다. 鴨形土器가 장식이 강하고 제작이 까다로워 다소 희귀성을 갖고 있으나, 이 희귀성이 우월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오리를 수장의 심벌로 채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세관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높이(아래) 29.5cm, 국립김해박물관 전시.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Sejong-no 1, Ch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